

대전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,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- 충청권 최초 대행기관 전용창구·지역 기업인 경제활동 신속 처리 기반 마련 -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'전용 창구'를 도입·운영한 결과,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- ▶(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)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,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 등을 대신하여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 - ▶(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)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사전 방문예약 없이 민원을 접수하는 특화 창구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
- ※ 현재 서울(청), 인천(청), 수원(청), 서울남부(소), 안산(소), 세종로(출), 평택(출) 7개 기관에서 운영 중

이는 작년 11월 29일 정성호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,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서 대행기관 전용 창구(1개)를 개설한 이후, 대행신청·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였고,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(기존)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 제외 → (개선) 37개 전 체류자격 접수 가능

이러한 조치에 따라,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되었고(39일→19일) 대행기관의 업무 편의성 또한 향상되어 민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

※ 천안출장소 관할 등록 대행기관 : 84개

※ 대행기관 접수 현황 : (기존) 월평균 15건 → (현재) 월평균 40건

또한 전문인력(E-7) 사증발급 시 초청업체나 피초청외국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※ '25.12.월부터 시범운영 결과 E-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 대폭 단축 (44일 → 11일)

천안출장소는 이 밖에도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「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」를 운영하여 외국인등록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의 관서 방문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인력수요가 큰 지역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.

※ '26.1.26~5.15. 유학생 1,862명, 계절근로자 392명에게 「찾아가는 출입국 서비스」 제공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(차용호)은 5월27일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·체류 등 각종 거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,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·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 이향숙 (02-2110-4070)
		담당자	사무관 나영미 (02-2110-4059)

